

■ 제주경찰, 코로나 시국 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위반' 단속해보니...

54명 우르르... 홀 안은 '불야성'

비상구 통해 불특정 손님 출입시켜 영업 행위 '53명 적발' 서울 유흥주점 넘어선 '전국 최대'

16일 새벽 0시12분 제주경찰청 112 상황실에 신고가 하나 들어왔다. "제주시 연동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영업이 하는데, 입구에 세워진 차량이 무전기로 말을 보고 있고 사람도 많이 있다"는 내용이였다. 제주경찰청은 즉시 연동지구대와 범죄예방순찰대 등 순찰차 6대와 병

력 12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제주시와 소방에서도 각각 3명과 4명을 투입했다. 이어 해당 유흥주점 밖에 설치된 실외기가 작동하는 점, 손님으로 보이는 인물이 주변에서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유흥주점 안에서 불법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은 곧바로 주점 출입문 2개소에 경찰관을 배치해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했고, 소방대원과 협업해 문을 강제로 열었다. 내부로 진입해보니 손님과 접객원 등 무려 54명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는 지난 5월 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집합제한 금지 위반업소를 적발할 때 단속한 53명을 뛰어 넘은 전국 최대 규모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대상 업소임에도 비상구를 통해 불특정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

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적발된 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과태료 혹은 감봉병에 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도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총 7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총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유형별로 보면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이 28건이었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10건이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두 딸 상대 10년간 몸쓸짓한 40대 지법 "참혹하다"...징역 30년 선고

두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몸쓸짓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제주시 소재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상대로 약 200차례에 걸쳐 몸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신의 친자녀들을 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타당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기록을 읽었는데, 너무 참혹했다. 기록 한 장 넘기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버림목이 돼야 할 가장임에도 두 딸을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삼았다"며 "또 가장폭력을 휘두르며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했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송은범기자

편의점서 행패 50대女 실형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서귀포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점주 B씨에게 "얼굴이 못 생겨서 남자도 못 만난다"고 고함을 치는 등 같은날 오전 8시50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동종의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찬투' 내습하던 날 제14호 태풍 '찬투'가 제주를 향해 접근한 16일 제주시 담양동 해안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강희만기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 '여전'

제주자치경찰단 17건 적발 유통기한 넘은 제품도 들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위반 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골프클럽 내 식당은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B식당의 경우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부·북어포 등을 보관한 C골프클럽 식당과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유명 레스토랑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을 비롯해 쌀·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도시락 전문점 등 4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주택가 주차문제 심각하다"

도, 도민 1005명 대상 '대중교통·주차정책' 인식 조사 10명 중 9명꼴 답변... 41% "이웃과 주차 갈등 경험"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은 주택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C&I'에 의뢰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교통과 주차정책'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제주지역 주택가 주차 문제에 대해 도민 10명 중 9명(86.2%)이 '심각하다' (매우 심각

46.9%, 다소 심각 39.3%)고 응답했다. 제주도 거주자의 경우 절반 이상(51%)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해 서귀포시에 비해 주차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차 여건에 대해 '만족한다'는 45.8%, '불만족한다'는 50.3%로, 오차범위 내 불만족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왔다. 주차 문제 발생 요인으로는 ▷공영 또는 민영 주차장이 부족해서

(35.4%) ▷외부인들의 무단주차가 많아서(30.2%) ▷집 앞 주차 공간 사유화(16.0%) 등을 꼽았다. 특히 주차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1.2%가 '있다'고 답했고 58.8%는 '없다'고 응답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영주차장 확대 65.6%, ▷부설 주차장(학교, 종교시설 등) 개방지 원 30.9%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30.7% ▷자전거도자 갖기 지원사업 확대 28.8% 순으로 택했다. 차량 이용자들의 주차수요 관리 정책을 알아본 결과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등 단속강화'가 42.5%로 가

장 높게 나왔다. 이어 '주차문화 개선 교육과 캠페인' 33.3%, '경·소형 차량 포함 차고지증명제 대상 확대' 33%, '공영주차장 유료화' 29.1%, '도심지 주차역제구역 지정' 25%, '급지별 차등 주차요금제 도입' 14.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63%)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33.3%)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한다면 어떤 교통수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32.4%가 '간선급행버스(BRT)'를 선택했고, 트램 14.2%, 궤도기반 모노레일 11.6% 순으로 응답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이별 요구 동거인 흥기 폭행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인에게 흥기를 휘두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도내 한 식당에서 동거인 B씨와 딸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B씨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주먹을 휘둘렀다. 분을 식히지 못한 A씨는 식당 주방에서 흥기까지 꺼내와 B씨를 수 차례 찔렀다. 크게 다친 B씨는 인근을 지나던 119에 의해 발견돼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8.5cm + 3cm + 5.5mm =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마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 마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온 전에 미리 던져 둘 수 있음
-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줄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 풀,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 원터치&초간편 길이 조절!
-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줄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줄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속해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4-28
상장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환영

전기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취득과정(주간반)

교육기간 2021.10.04~2021.12.27(3개월, 240시간)
교육시간 09:00~13:00(평일 주간, 일일 3교시)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
교육내용 전기 이론 & 실기, 태양광 이론 & 실기

전기설비 직무능력 향상 과정(주간반)

교육기간 2021.10.04~2021.12.10(2.5개월, 150시간)
교육시간 14:00~17:00(평일 주간, 일일 3교시)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위기사산업직종 종사자 포함)
교육내용 전기 이론, 전기설비 이론 및 실습(전기(산업) 기사수준)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1급, 2급)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1급, 2급

2021년 제1회 전기기사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인, 한*남, 강*영, 김*현, 옥*환, 이*석, 장*연, 최*영, 최*혜(총9명)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서로 81 (성도동) 중앙여중 정류장, 전행마트 맞은편(064)725-5545 (http://www.wjjuvs.co.kr)

그랜드보청기

한가위맞이 사은대행사!!
선착순, 20만원 상당 녹음증정

9월 한달간 배터리 ₩20,000 → ₩9,000 할인행사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충을 흔저 전화 주시면!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경유이 2층
제주시 서서로 225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환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서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